

## 食을 통한 농의 가치 재발견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식량하면 언 듯 보릿고개라는 말이 떠오른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어지간히 농사를 짓는 집이라도 봄에는 양식이 떨어졌다. 먹을 것은 없는데 왜 그리 식구는 많았던지. 거친 콩보리밥 찬물에 말아 된장에 푹추를 찍어먹거나, 그것도 없는 집에서는 보리쌀을 한줌 갈아 거기에 연한 보릿잎을 넣고 끓여 입에 풀칠을 하고 채 여물지 않은 감자나 썩과 밀가루를 섞어 찌서 먹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래서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이 참 소중한 시절이 있었다.

화학비료의 사용과 녹색혁명 등 농업부문의 기술개발과 새마을운동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식량의 공급이 늘어나자 '하얀 쌀밥에 고기국'을 실컷 먹어보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꿈는 사람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피자과 햄버거, 치킨 등 외국에서 수입한 인스턴트 농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줄어지고 있다. 식량부족이 아니라 영양과다로 인한 성인병 등 만성질환을 걱정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산업화와 도시화,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우리 농업과 식품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된장이나 김치를 포함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던 음식을 이제는 대부분 시장에서 사 먹고 있다. 소비하는 식품의 종류나 형태도 곡물과 채식 위주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서구 식으로 바뀌고 있다.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급격하

게 늘어나고 식량자급률은 27%대로 떨어졌다. 어디 그뿐인가? 제사상의 절반 이상을 외국산 농산물이 차지하고 칠레산 포도와 덴마크산 삼겹살, 프랑스산 와인 등 누가, 어떻게 생산한 것인지도 모르는 외국산 식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시고 있다.

식품이 우리 농업에서 멀어지면서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民以食爲天) 라던가, '농사가 천하의 근본(農者天下之大本)' 이라고 하여 중시되던 농업이 산업이자 생계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농림어업 생산액은 국민총생산액의 3%에 미치지 못하며, 농림어업 인구는 총 취업 인구의 6%에 불과하다.

2011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보면 역대농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일년에 1,000만원 수입도 얻지 못하는 농가가 65%나 된다. 정부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에는 수입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농업인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머지않아 고향에 두고 온 늙은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농업인 간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농업인 생계의 어려움과 농촌지역사회의 위축은 단지 농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농업의 경쟁력 약화는

식품과 농업·농촌의 연계 고리를 확인함으로써 식(食)을 통한 농(農)의 가치 재발견, 즉 제 고향에서 생산한 농식품, 그리고 이를 차별적으로 유통하는 농업인의 노력이 바로 건강한 국민 식생활과 건전한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축이다.

농가의 소득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를 수반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인구감소를 수반하게 된다. 이는 다시 학교와 병원의 운영은 물론 시장의 유지나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과 같이 인간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어렵게 하여 지역사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 즉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일터이자 삶터, 쉼터로서 농촌지역사회의 존속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식량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과 달리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은 돈이 있으니 외국에서 식량을 사다 먹을 수 있지만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에 흉년이 들면 과연 어느 나라가 자국민이 먹을 식량을 판매할 것인가?

2011년 식량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난 알제리와 이집트는 물론 2010년 식량수출금지 조치를 내린 러시아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세계 곡물가격은 널뛰기를 하고 있다. 또한 수입농산물은 장거리 수송에 필요한 신선도 유지나 부패방지를 위해 화학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성을 위협하며, 서구식 식생활로 비만과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는 국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음식으로 인해 질병을 앓게 되면 그만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모두가 우리 땅에서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가 단절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로 식탁과 농장의 거리를 좁히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거리를 줄이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푸드마일리지(7,085t·km)는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보다 훨씬 높다. 이는 많은 양의 농식품을 먼 지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을 의미하

며 식품의 안정성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지산지소(地產地消)나 로컬푸드(local food)라고 하여 제철·제고장에서 난 농산물을 소비하지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토불이(身土不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삶터이자 쉼터로서 농업과 농촌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는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는 많은 재정투자를 해 왔으나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에 달려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제 값을 주고 소비하는 것이 바로 농업과 농촌지역사회를 지속하는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식품과 농업·농촌의 연계 고리를 확인함으로써 식(食)을 통한 농(農)의 가치 재발견, 즉 제 고향에서 생산한 농식품, 그리고 이를 차별적으로 유통하는 농업인의 노력이 바로 건강한 국민 식생활과 건전한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축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흙과 물과 바람과 농민들의 정성이 고유한 맛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이 땅의 식품창고를 지키는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고, 국토를 가꾸는 농민들의 수고에 제대로 화답하지 않으면 식과 농의 고리는 지속되기 어렵다. 먹을거리를 통해서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㉞